

켄 로치(Ken Loach)의 <레이닝 스톤(Raining Stones)>(1993)에 구성된 일상과 소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eryday Life and Alienation Constructed in <Raining Stones> (Ken Loach, 1993)

강승묵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Seung-Mook Kang(mookang@kongju.ac.kr)

요약

이 글은 이른바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알려진 켄 로치의 <레이닝 스톤>(1993)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일상(생활)과 소외의 논제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일상성, 사회 공간, 일상공간, 소외와 관련된 주요 이론들과 앙리 르페브르의 논의를 이론적 배경이자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켄 로치 감독은 <레이닝 스톤>의 공터나 주차장 같은 공적인 사회공간과 가정(집) 등의 사적인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의 병폐들을 비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변혁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돌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계급의 소외가 당연시되는 현실과 그런 현실로부터의 탈소외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역설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상의 사회 공간이 일상(생활)의 일상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 | 일상(생활) | 일상성 | 사회공간 | 일상 공간 | 소외 |

Abstract

This article selected a feature film <Raining Stones>(1993) of Ken Loach who is widely known as 'Socialist Realism Film' director and attempted to explore the thesis of everyday (life) and alienation in daily space. To this end, major theories related to everyday life, dailiness, social space, daily space, alienation, and especially Henri Lefevre's discussions were used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search methodology. According to the results, director Ken Loach presents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of everyday life by criticizing the ills of capitalism that occur in public social spaces such as vacant lots and parking lots in <Raining Stones> and private daily spaces such as homes. It also emphasizes the reality that the alienation of the working class, which has no choice but to be exposed 'stone rain', is taken for granted and the paradox that the alienation from such reality can be achieved in everyday life. These research findings can be said to mean that the social space of everyday life is the basis for changing the dailiness of everyday life.

■ keyword : | Everyday(Life) | Dailiness | Social Space | Daily Space | Alienation |

I. 서론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보수당 정권의 수장이자 영국 수상으로서 신자유주의의 폭압적인 권력체계를 구축했던 마거릿 H. 대처(Margaret H. Thatcher) 정부의 비리와 실정을 고발하는 수사관, 임시 고용과 저임금으로 연명하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업자, 일용직 건설 노동자, 무명 가수, 미혼모, 버스 운전사, 향만 노동자, 마약 중독자, 건물 청소부, 노동운동가, 청소년, 이민 2세대, 비정규직원, 이주 노동자, 아일랜드공화군(IRA) 지원병 등은 이른바 '키친 싱크(kitchen sink)' 감독으로 알려진 켄 로치(Ken Loach)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군이다. 이들은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인 신자유주의의 전지구화가 본격적으로 개진되었던 1990년대부터 영국 사회의 주변부, 비주류 계급에 '자연스럽게' 편입된 사회적 소수자였다. 따라서 이들은 '부억'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 소외를 감내해야만 했을 만큼 힘겨운 일상을 살아야 했다.

기실 그들의 일상만 그런 것은 단연코 아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처럼, 일상(everyday)생활(life)에는 늘 곤근함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기 마련이다. 어제는 오늘로, 오늘은 다시 내일로 이어지며 일상은 계속되지만 비록 잊고 싶을 만큼 힘겨웠던 어제더라도 오늘마저 그러리라는 법은 결코 없으며, 오늘이 비극이더라도 내일은 얼마든지 다시 희극일 수도 있다. 일상은 그렇게 매일매일 되풀이되며 무한히 연장된다. 그러나 어느 한 개인의 일상의 반복성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멈춰진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일상과 개인의 일상은 모순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와 그로 인한 비접촉문화(untact culture)의 확산이 초래하는 한국사회에서의 일상 역시 당연한 듯, 당연하지 않은 듯 끊임없이 지속되며 변화하고 있다. 일상의 본질적인 속성인 일상성(dailiness) 또한 그 지속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한층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양상을 드러내며 변이되기도 한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일상성이 구성되는 사회공간(social space)은 지속적인 변화와 변이를 반복하며 사회구성

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물질적인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공간은 “하나의 개념이면서, 생산물이고 또한 생산의 수단”[1]인 셈이다.

일상생활은 이론적·방법론적 사유를 위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사회공간에서 (재)구성되면서 소비의 욕망을 추동하는 생산물이나 생산수단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이 사회공간에서 (재)구성되는 동안에 다양한 국면의 소외(alienation)가 발생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와 연관된 권력과 계급,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문제들이 소외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시킨다. 따라서 소외는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경험되고 마주치며, 수용되고 무시되며, 타협”[2] 될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발원한 비판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일상생활이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된 영역이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의 보편적 영역으로, 소외된 객체성과 이를 극복하는 주관성, 부정적 현실과 긍정적 미래가 접합하는 장소”[3]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 글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수록 공고해지는 자본권력의 폭압과 침예하게 대립하는 계급갈등을 야기하는 일상과 일상성의 논제를 일상 공간과 일상생활에서의 소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일상을 속절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일상과 일상 공간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우리를 소외시키는지를 성찰하게 하는데 연구목적 두고 있다. 연구대상은 영국의 프리시네마(free cinema) 운동을 선도했던 켄 로치 감독의 <레이닝 스톤(Raining Stone)>(1993)으로 선정했으며,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와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일상(성)과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차이와 반복 이론을 계승하면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일상(성) 탐구에 천착한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과 일상성, 공간과 소외 등에 관한 논의를 이론적 배경이자 연구방법론으로 설계했다.

II. 이론적 논의

1. 일상과 일상생활, 일상의 사회공간

일상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삶과 생활도 동시에 멈춰 선다. 일상은 절대적 물리인 시간과 시간이 전개되는 공간의 분리와 결합을 통해 “존재와 생성, 부재와 소멸을 반복하며 영원히 지속”[4]된다. 따라서 일상은 점차 “보잘 것 없으면서도 견고한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분과 단편들이 하나의 일과표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5]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은 그렇게 무한 반복되고 지속되며, 연장된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지극히 일상적이거나 비일상적이기도 한 다양한 욕구들이 발현되고,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수단과 생산물들이 개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욕구의 충족 여부나 정도와 무관하게 결핍감이나 박탈감이 더욱 증대되기도 한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어느 하나의 욕망은 또 다른 욕망으로 부단히 연결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결핍, 박탈, 불안 등이 어제와 다른 오늘이나 오늘보다 나아질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촉진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즉, 일상의 발전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욕망이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 욕망과 박탈, 충족과 결핍이 상호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일상은 “자본주의 세계의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그 모호성 속에 드러내고 감추는 영역이며, 변하지 않은 현실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공간”[6]이다. 마치 변증법의 정-반-합처럼 일상 공간에서도 가변-불변-변화의 원리가 작동하는 셈이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소비-욕망의 변증법적 운동은 자본의 권력추구와 그로 인한 계급 차이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당연시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일상이 자본주의의 작동 체제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되는 동시에 그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저항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앙리 르페브르는 일상의 잠재적 변혁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일상성이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생산된 현실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확장과 사회관리의 양태이기 때문에 일상성을 미화, 수락, 추인하기 위해서이기보다 변화시키기 위해 일상의 삶을 탐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7]. 일상의 삶이 지속되면서 직면하

는 일상생활의 현실(reality of everyday life)은 하나의 정돈된 실재(an ordered reality)로서, 내 신체가 위치한 ‘이곳’과 현재의 내가 존재하는 ‘지금’, 내 주변에서 조직된 것(is organized around the ‘here’ of my body and the ‘now’ of my present)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현실은 타인들과 공유한, 상호주관적인 세계(an intersubjective world, a world that I share with others)로서, 실제로 당연히 받아들여진 것(is taken for granted as reality)이며, 빈틈없이 다른 현실들을 감싸는 것(envelops other realities on all sides)인데다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 구성된 것(is structured both spatially and temporally)이기도 하다[8].

특히 ‘지금-여기(now-here)에 실재하며 당연시되는 공간’은 일상생활의 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의 장이자 매체이고, 현실적이지도 잠재적이지도, 양적이지도 질적인 사회공간이다. 즉, 일상생활의 현실은 단지 자연공간이기보다 특정 생산양식의 산물인 동시에 생산관계에 따라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발생하고 지속되며 연장되는 일상생활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험, 관찰, 이해, 기술, 분석, 의사소통 등과 관련된 사회학적 지향인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10]. 이와 같은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접근은 구체적이고 대면적인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관찰과 경험 및 사회구성원들의 의미 분석을 전제한다.

현대사회의 일상 공간에서 구성되는 일상생활은 “작소한 것들 속에서의 반복”[11]이라는 일상성을 통해 자본주의의 변한 부분과 변하지 않은 부분을 동시에 공존시키면서 사회혁명을 지연시킨다. 앙리 르페브르의 이와 같은 문화론적 모색은 “일상의 세계가 자본주의적 삶의 ‘변화’를 가장 잘 은폐하고 있는, 드러내기와 감추기, 자유와 억압의 이중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영역”[12]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소외가 탈소외(de-alienation)의 가능성을 내포하며 일상적인 사회공간은 소외와 탈소외가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곳이라고 가정한다.

2. 일상과 일상생활에서의 소외

일상생활에서의 현실은 항상 “비전체non-all이며, 통합이 불가능한 간극과 균열 위에서만 존재”[13]한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은 “조각조각 파편화된, 결코 통합을 통해 전체를 이룰 수 없는 시공간으로 구성”[14]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일상은 “필수적인 것과 임의적인 것,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착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 소외와 탈소외의 변증법의 영역”[15]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소외/탈소외/새로운 소외, 물상화/미완적 총체화/총체성의 해체에 관한 변증법적 운동으로, 부정성의 개념은 새로운 추동력을 얻게”[16] 된다.

소외이면서 소외가 아니거나 물상화이자 물상화일 수 없는 부정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일상(성)은 곧 생산물이자 생산수단이며, 생산양식이다. 따라서 생산-소비-욕망의 변증법이 추동하는 소외와 탈소외의 논제도 결국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어떤 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논구해야 이해될 수 있다. 앙리 르페브르를 비롯해 다수의 사회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일상(성)의 지배적 특징은 반복성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생산-소비-욕망의 변증법이 작동하는 양상은 곧 자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을 거치며 전개된다. 그 과정에는 당연히 계급도 지배-피지배-착취 또는 억압의 변증법적 관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착취, 지배와 피지배는 불가피하게 계급 문제와 직결된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 해계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결국 일상의 변증법적인 반복성을 통해 전개된다. 따라서 일상생활은 “파편화되고 진부한, 그래서 탐구할 가치조차 없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소외와 사회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소”[17]일 수밖에 없다. 앙리 르페브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소유의 관계에 의한 경제적 소외가 기술관료주의적 국가에 의한 정치적 소외, 일상생활에서의 물질적, 의식적 소외 등으로 확장된다고 역설한다[18]. 즉, 소외는 “임금노동의 소외나 교환가치로 유통되는 상품의 물신성과 같이 경제적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일상생활과 소비문화 그리고 관료주의적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영역들로 확장심화”[19]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탈근대 담론의 약화와 전지구화 논쟁

의 격화가 야기한 신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일상적 소외는 중요한 관심거리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중심과 주변, 주류와 비주류, 우리와 그들 등의 이항대립적인 사회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사회 내 구성원이면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가 일상적 소외이다. 앙리 르페브르는 신자본주의 체제에서 소외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들에서 구체화되며,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논구는 일상생활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소외는 인간과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며, 탈소외를 통한 인간성과 일상성의 회복이 일상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공간에서 (재)구성되는 일상생활은 그 자체가 소외된 영역이다. 이곳에서 발현되는 도시적 소외(urban alienation)는 근대성의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동력으로 작동하는 소외의 모든 형태를 가지면서 그 형태를 지속시키는 특성을 지닌다[20]. 따라서 도시적 소외에 관한 논의는 “도시인들의 주관적 의식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공간적인 변화와 이 변화가 인간 생활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21]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그 결과,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공간에서는 자본과 노동,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에 의한 소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 일상생활에서의 생산과 소비문화, 일상적인 욕망과 사회공간에서의 소외 등의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된다.

III.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이 글의 연구대상은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레이닝 스톤>이다. <레이닝 스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일차적 이유는 “경제와 정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맥락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삶들의 디테일은 매우 인간적이고, 자주 웃기거나 슬프기도 하며, 보통의 경우에는 모순과 복잡성으로 가득 차 있다.”[22]는 켄 로치의 성찰적인 고백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돌덩이가 비처럼 내린다는 뜻의 ‘레이닝 스톤(raining stones)’이 갖는

함의가 이 영화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영국 북부지방에 전해지는 격언이기도 한 레이닝 스톤은 일상적으로 '돌비'를 맞으면서도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계급이 견뎌야 할 '모순과 복잡성으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일상의 무게를 오롯이 담고 있는 비유적 어구이다.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냉전의 종식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촉발했고, 그 여파로 인해 영국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확대되면서 빈곤계급의 비중이 폭증하게 된다. 사실주의 기반의 영화를 통해 영화와 감독의 현실참여를 주창해 온 켄 로치는 <레이닝 스톤>이 개봉된 1993년 전후의 영국인들의 일상과 소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시대적이고 영화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영화 <레이닝 스톤>의 영화적 공간에 (재)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일상(생활)과 일상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레이닝 스톤>의 주요 등장인물들에게 부가된 일상적 소외의 양상과 그 함의를 탐색하는, 것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있다.

IV. 연구결과

1. '당연시'되는 일상과 일상 공간의 변혁

전체 상영시간 90분, 7개의 시퀀스, 47개의 신으로 내러티브가 구성된 <레이닝 스톤>은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무렵, 영국의 소도시 미들턴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켄 로치의 여느 영화들처럼 세트나 무대 등의 인위적인 공간 배경을 배제하고 미들턴의 실제 거리, 가정집, 선술집, 점포, 성당 등을 로케이션으로 활용했다. 당시의 미들턴 지역은 여느 영국 도시들처럼 버블경제의 붕괴와 노동통제정책이 촉발한 신자유주의의 열풍에 휩싸여 있었고, 도시빈민이나 노동자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을 살면서 일상을 꾸려야만 했다.

이와 같은 시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레이닝 스톤>은 절친한 친구 사이인 밥(Bob, Bruce Jones 분)과 토미(Tommy, Ricky Tomlinson 분)의 일상 '분투기'를 핵심 플롯으로 설정하고 있다. <레이닝 스톤>에서의 일상은 [표 1]에서와 같이, 세금이나 보험 따위는 널 업두

조차 내지 못한 채, 오래된 차마저 어처구니없게 도둑질 당한(열 번째 신, S#10, 이하 S#로 표기) 실업자이자 개털(skint, S#6)인 밥과 토미의 일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 공간에서 훔친 양고기를 혈값에 팔아넘기고(S#4, 6, 7). 몇 푼 안 되는 일당과 시급에도 감지덕지하는(S#24, 27) 처지에 몰린 골칫거리(buffer, S#8)들이다.

표 1. <레이닝 스톤>의 일상과 일상 공간

S(#)	시간	일상과 일상 공간의 스토리
4	5:12~7:26	정육점 주차장(공터): 훔친 양고기 가격을 흥정하는 밥, 토미, 정육점 주인
6~7	8:35~11:42	선술집(식당): 선술집(식당)에서 밀도축한 양고기를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밥과 토미
8	11:43~12:06	정육점 주차장(공터): 토미에게 빌린 5파운드를 밥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토미의 거짓말
12	17:49~18:35	길거리(토미 집 앞): 살자자라고 동물취급하지 말라고 외치는 토미
14~15	20:24~24:26	마을 이웃집 - 성당(마당): 장인에게 빌린 배관공으로 하수구 수리 일을 찾는 밥 - 성당 자원봉사
25	43:55~44:43	레이브 클럽 출근 첫 날 해고당한 밥
27	44:44~49:00	길거리(밥 집 앞) - 보수당 사교클럽: 정치의 일상화, 사적 노동과 공적 정치
30~31	53:29~56:41	주차장(공터): 중고 밴 구입을 위해 흥정하는 밥, 토미, 클리프 - 밴을 구입해 집으로 돌아온 밥
33	57:43~59:55	밥 집 앞(복도): 신세를 한탄하는 앤과 메이
39	68:41~71:00	길거리 - 밥 집(거실): 난장판이 된 집, 밥의 거짓말과 변명
46	86:31~89:03	교차면집 - 성당(신부 방), 밥 집 - 성찬식이 열리는 성당과 도둑맞은 밴을 찾았다고 알리는 경찰

절도한 양고기를 팔기 위해 밥과 토미가 정육점 주인과 흥정을 벌이는 정육점 뒷골목 주차장(S#4)은 사실상 공터이다. '빈 곳'인 이곳은 누구나 언제든 그곳을 점유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이다. 정육점 뒷문과 맞닿아 있는 공적 영역인 주차장 공간에서는 밀도축한 육류의 사적 거래가 공공연하게 자행된다. 공간과 행위, 인물과 사건이 모두 지극히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손쉽게 구성되는 것이다.

앙리 르페브르가 역설했듯이, 일상의 변혁은 더 이상 변화될 여지가 없어 보일 만큼 극단에 다다른 일상 자체의 변화 없음에 잠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레이닝 스톤>이 제작된 1990년대 초반은 대처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정점에 이르면서 일상이 끝모를 곳으로 깊게 침잠되어 있었다. 밥과 토미의 일상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매번 똑같은 길거리와 공터에서 생존을 위해 분전에 분전을 거듭한다. 그곳에서 밥은 장인으로부터 하수구 배관 청소기를 빌려 마을을 돌

면서 영업을 하지만 ‘할 일이 태산’이어서, ‘지난주에 직접 손을 봐서’,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서’, ‘무엇’을 뚫으려 하든지 필요 없다는 등의 그저 그런 이유들로 인해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오물을 뒤집어쓰기까지 한다(S#14, 15). 어렵사리 중고 밴을 구입해 집으로 돌아온 밥이 앤(Anne, Julie Brown 분)과 콜린(Coleen, Gemma Phoenix 분)에게 “잘 될 거야(it's got to be right)”라며 위로하는(S#30, 31) 일상 공간 역시 공적인 사회공간인 공터이자 주차장이다.

또한 이른 새벽, 막일거리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선 토미에게 경찰 헬리콥터가 어둠 속에서 조명을 비추자 그가 “실직자라고 동물 취급하지 말라”고 항의하며, ‘기생충 같은 놈들(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혁명(revolution)’이 필요하다고 항변하는 곳도 길거리와 공터 같은 일상의 공적인 사회공간이다. 밥과 토미는 그곳에서 일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 즉, 항상 변함없는 일상 공간으로서의 공터와 주차장은 ‘당연시’되는 일상성으로 인해 불변-가변-변화의 변증법적인 원리에 따라 일상을 전복하고 변혁시킬 수 있는 저항의 원천이 되는 셈이다.

밥이 획득하고자 했던 일상 전복과 변혁의 계기는 의동딸 콜린이 성찬식(Communion)때 입을 예복이다. 밥은 콜린이 ‘순결하게’ 성찬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예복을 사주기 위해 당연시되는 일상과 변화시켜야 할 일상 사이에서 고군분투한다(S#14, 15, 25, 27). 그러나 밥의 동력은 밥이 동분서주하는 동안에 이내 소진된다. 결국 밥은 사채(대출)를 쓰게 되고, 집으로 들이닥친 고리대금업자는 앤과 콜린을 협박하며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다(S#39).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밥을 비롯한 <레이닝 스톤>의 등장인물들은 그렇게 경제(자본)적 생산양식에 따라 계급화 된 일상성을 견뎌야 한다. 그들은 그런 하루하루를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배자의 역할’을 하는 일상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23]. 켄 로치는 자본주의적 체계에 의해 구성되는 차별적인 일상성이 일상의 변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지배적인 도구로 작용하다보니 밥과 토미 같은 피지배계급에 속한 이들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지배계급의 공적인 정치 행위를 사적인 노동으로 희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가령,

밥과 토미가 시급 5파운드(약 8천원)를 받기로 하고 20여 년간 대처 수상이 이끌었던 영국 보수당 정권의 사교클럽(The Con Club) 정원에 잠입해 반듯하게 심어진 잔디를 카펫을 맡듯이 잘라 훑치는 행위(S#27) 생계를 위한 노동의 일부로 정치를 끌어들이어 일상생활을 정치적 실천행위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록 소도시이지만 미들턴 같은 도시 공간에서의 ‘일상생활과 도시적인 것은 분리불가능하게 연계되어 있는 동시에 생산물이자 생산(과정)’[24]이기 때문에 생산-소비-욕망의 변증법적 체계를 통한 자본주의적 삶의 변화와 변화하지 않음은 동시에 공존하고, 일상의 변혁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칠이 벗겨진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낙서로 뒤덮인 밥의 낡은 아파트 복도는 일당 10파운드를 벌기 위해 시간제 청소부 일자리라도 알아보려는 앤과 메이(May, Christine Abbott 분)의 생산-소비-욕망이 변증법적으로 증점된 일상 공간이다(S#33). 이들은 그곳에서 이웃의 자살소식에도 담담해하며 “모두 청운의 꿈을 안고 무언가를 하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푸념한다. 그렇게 <레이닝 스톤>에서의 일상(생활)은 “거대한 기계가 노동자의 노동 이외의 시간을 장악하고 상품의 보호막처럼 흉물스럽게 이런 사실을 둘러싸는”[25] 현실과 속절없이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2. 돌이 되어 내리는 비, 소외와 탈소외의 공존

속칭 ‘밥줄’인 고물차와 양고기를 통째로 도둑맞은 밥과 토미에게 동네 할머니들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며 위로인 듯 책망을 하고(S#10), 차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는(no wheels, no work)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한 밥과 토미는 최소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나서야 하는 형편에 처한다(S#11). 그러나 밥은 콜린의 성찬식용 예복의 선수금을 지불하느라 집으로 돌아갈 버스비조차 없어 아내와 딸마저 집까지 걸어가게 하고(S#21), 구직신청을 해보지만(S#17) 고리로 돈을 빌리는 상황(S#23)에 몰리면서 결국 정치경제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소외를 두루 감당해야 한다. 그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은 종교적 신념과 가장으로서의 소멸의식 뿐이다.

표 2. <레이닝 스톤>의 일상적 소외

S(#)	시간	일상적 소외의 스토리
10	12:56-14:15	정육점 주차장(공터): 눈 같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
11	14:16-17:48	밥 집(거실): 차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는, 입에 풀칠 하기도 힘든 일상
13	18:36-20:23	지미(밥 장인) 사무실: 골백번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는 일상
16	24:27-26:36	성당(신부 방): 일할 권리와 사랑, 기도
19	28:14-31:54	토미 집(거실): 자본으로부터의 소외, 가족으로부터의 탈소외
21	33:14-34:10	길거리: 무거운 발걸음, 더 무거운 일상
26	43:55-44:43	밥 집(거실): 일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집
29	49:41-53:28	지미(밥 장인) 사무실: Raining Stones
36-37	62:23-64:21	밥 집(거실) - 시장: 희비가 공존하는 집과 시장
44	82:19-85:15	성당(신부 방): 탈소외의 가능성과 선과 악
46	86:31-89:03	교차편집 - 성당(신부 방), 밥 집 - 성찬식이 열리는 성당과 도둑맞은 빵을 찾았다고 알리는 경찰

경제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무엇보다 가족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소외시켜야 했던 밥처럼 토미 또한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마주한다. 오랜만에 집에 온 딸이 엄마와 함께 외출하며 토미에게 술이라도 한 잔 하라고 준 '용돈'을 못이기는 척 받으며 잠시 수심에 잠겼다가 이내 소리죽여 오열하는(S#19) 토미에게 일상은 자본과 가족 모두로부터 탈소외해야만 되는 전장이나 다름없다. 소리 없는 총탄과 폭탄이 난무하는 그의 일상에는 궁핍과 공허, 갈등과 좌절이 점철된 전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술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일상은 자본권력을 둘러싼 억압과 착취에 의해 발생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 관계가 인간관계마저 결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와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 모두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임차인협회 간부인 밥의 장인인 지미(Jimmy, Mike Fallon 분)는 부동산 담당 노동당 의원에게 '골백번 얘기'해봐야 집세 관련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S#13). 그렇다 보니, 그를 비롯해 밥과 밥의 가족, 그리고 이들 모두의 소외된 일상(생활)은 “노동자에게 일주일 내내 돌이 되어 쏟아지는 비(When you're worker, it 'rains stones' seven days a week)”나 매한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니' 공연히 '좌책감에 방황하면서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말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바꿀 수는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켄 로치는 지미의 입을 빌려 강조한다(S#29).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주조하는 일상(생활)은 단지 임금노동이나 교환가치로 유통되는 상품의 물

신화(reification)에 의해 소외되지는 않는다. 켄 로치는 배리 신부(Father Barry, Tom Hickey 분)와 사제 관이라는 사회공간을 통해 경제적 소외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의식적 소외의 위험성을 비판한다. 전혀 돈벌이가 되지 않는 성당의 오수배관을 수리한다며 나섰다가 오물만 뒤집어쓴 밥에게 배리 신부는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고, 실직자여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S#16)라고 위로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는 밥에게 신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밥이 고리대금업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우연찮게 그가 죽자 채무자 명부를 빼내 신부를 찾아왔을 때 신부는 명부를 소각하며 고리대금업자가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셨기 때문이라고 밥의 허물을 감싸다(S#44). 밥의 일상(생활)으로부터의 소외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치유되는 것이다.

'돌비'를 맞으며 일상을 살아야하는 밥은 마침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설령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은 하느님만 아는 비밀일 뿐이며, 하나의 악이 더 사악한 또 다른 악을 제거해 선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자본주의의 미덕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런 깨달음은 비단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성당이라는 사회공간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주차장이나 공터처럼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시장(S#37)과 달리 집(가정)은 일상으로부터 소외되는 동안에 생긴 상처를 치유해줌으로써 탈소외를 가능케 하는 세속적인 공간이다. 그곳에서 토미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울음을 삼키고(S#19), 밥은 앤으로부터 피가 터진 얼굴을 치료받기도 한다(S#26).

이와 같이 일상은 일상생활 자체와 일상적인 생산과 소비를 향한 욕망으로 인해 일상을 사는 이들을 끊임없이 소외시키는 동시에 탈소외의 기회를 제시한다. <레이닝 스톤>의 엔딩 신(S#46)에는 콜린의 성찬식이 진행되는 성당과 밥의 가족, 그들의 집 주차장에 도착하는 경찰차, 집으로 들어가는 경찰이 교차편집되어 있다. 경찰은 밥 가족의 이웃에게 도난당한 밥의 고물차(S#10)를 찾았다는 소식을 대신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밥은 신부로부터 '신의 가호'를 약속 받으며 영성체를 모신다. 밥과 밥의 가족은 비로소 다시 찾은 차와 새로 입은 신의 은혜를 밀천으로 이전과 다른 생산-소비-욕

망의 변증법을 행하면서 탈소외의 채비를 하게 된다.

V. 결론 및 제언

어제는 어김없이 오늘이 되고, 오늘은 에누리 없이 내일로 이어진다. 그렇게 절대적인 물리로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공간에선가 일상은 부단히 구성 및 재구성되며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연장된다. 그렇다보니 일상과 일상생활은 별것 아닌 것처럼 지극히 당연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래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전대미문의 일상(생활)처럼, 일상(생활)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은 권력 지향적인 자본의 횡포에 의해 더욱 녹록치 않게 (재)구성되기도 한다.

이 글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일상성이 자본권력이 행사하는 폭력적인 억압에 의해 지배 받는 상황에서 일상과 일상 공간에서의 소외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레이닝 스톤>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일상, 일상생활, 일상 공간, 사회공간, 소외와 관련된 앙리 르페브르의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배경이자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개털'이자 '골칫거리'인 밥과 토미를 비롯해, 그들의 주변 인물들이 겪는 일상(생활)은 공적 사회공간인 마을의 공터, 주차장과 사적 사회공간인 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로 전개된다. 영화가 제작 및 개봉되었던 1990년대 초반의 영국 사회를 사실적으로 재현한 켄 로치 감독은 영화 속 일상(생활)이 실제 현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음을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절도, 밀매, 막일, 실업, 사채, 폭력 등을 통해 비판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억압과 착취가 야기하는 계급 관계가 변함없는 일상(생활)을 변혁시킬 수 있다는 역설을 앙리 르페브르의 논의를 통해 논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켄 로치는 <레이닝 스톤>을 통해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돌이 되어 쏟아지는 비를 매일 맞으며 일상(생활)을 감내하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탄한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에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밥과 토미 등은 '눈물을 머금고' 소외를

감당한다. 동시에 그들은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돌비'를 맞으며 탈소외를 감행한다.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고, '(잘못된)제도를 바꿀 수도' 있으며, 그렇게 하다보면, 그곳이 종교적인 사회 공간이든, 세속적인 일상공간이든 탈소외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레이닝 스톤>의 이야기는 과거의 영국 사회와 그 사회에서 살았던 이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이 글은 일상과 일상생활, 일상 공간과 사회공간, 소외와 탈소외의 논제를 한 편의 영화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논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 켄 로치 감독의 영화들 가운데 이 글의 논제와 관련된 복수의 영화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여타 감독의 유관 영화들과의 비교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최병두,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지리학회지, 제53권, 제2호, p.165, 2018.
- [2] H. Lefebvre,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I: Fondements d'une sociologie de la quotidienneté," trans J. Moore,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2, Verso: London, p.249, 2002. (originally published in 1962)
- [3] 최병두,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지리학회지, 제53권, 제2호, p.153, 2018.
- [4] 이자혜, 최종한, 태지호, 서원태, 박홍열, 박동애, 강승묵, *영상 아포리아*, 한울, p.20, 2019.
- [5] H. Lefebvre,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박정자,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p.78, 2005.
- [6] 도정일, "문화이론/문화, 상징질서, 일상의 삶-비판이론의 현단계: 루이 알튀세르와 앙리 르페브르," 문화과학, 제1호, p.131, 1992.
- [7] 도정일, "문화이론/문화, 상징질서, 일상의 삶-비판이론의 현단계: 루이 알튀세르와 앙리 르페브르," 문화과학, 제1호, pp.128-129, 1992.
- [8] P. L. Berger and T.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pp.21-28, 1967.

[9] H. Lefebvre, *Elements de rythmanalyse*, 정기현,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갈무리, p.127, p.290, p.499, 2013.

[10] J. D. Douglas, "Introduction to the Sociologies of Everyday Life," in J. D. Douglas(eds.), *Introduction to the Sociologies of Everyday Life*, Bpston: Allyn and Bacon, pp.1-2, 1980.

[11] H. Lefebvre, *Elements de rythmanalyse*, 정기현,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갈무리, p.65, 2005.

[12] 도정일, "문화이론/문화, 상징질서, 일상의 삶-비판 이론의 현단계: 루이 알튀세르와 앙리 르페브르," *문화과학*, 제1호, p.120, 1992.

[13] T. Myers, *Lp Routledge Critical Thinkers 1*, 박정수,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앨피, pp.143-147, 2005.

[14] 이자혜, 최종한, 태지호, 서원태, 박홍열, 박동애, 강승묵, *영상 아프리카*, 한울, p.42, 2019.

[15] H. Lefebvre,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I: Fondements d'une sociologie de la quotidienneté," trans J. Moore,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2, Verso: London, p.62, 2002. (originally published in 1962)

[16] H. Lefebvre,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I: Fondements d'une sociologie de la quotidienneté," trans J. Moore,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2, Verso: London, p.183, 2002. (originally published in 1962)

[17] 최중욱, "앙리 르페브르," *이론*, 제1호, p.144, 1992.

[18] H. Lefebvre,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 Introduction," trans J. Moore,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2, Verso: London, p.229, 1991. (originally published in 1947)

[19] 최병두,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지리학회지*, 제53권, 제2호, p.150, 2018.

[20] H. Lefebvre, *La Révolution urbaine*, trans R. Bononno, *The Urban Revolution*,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92, p.207, 2003. (originally published in 1970)

[21] M. Seeman, "The Urban Alienations: Some Dubious Theses from Marx to Marc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9, No.2, p.135, 1971.

[22] <http://internationalviewpoint.org/spip.php?article5709>, 2020.7.2.

[23] H. Lefebvre, *Elements de rythmanalyse*, 정기현,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갈무리, pp.345-346, 2005.

[24] H. Lefebvre, "Le droit à la ville," trans E. Kofman and E. Lebas, *Writings on Cities*, Oxford, UK : Blackwell, p.185, 1996. (originally published in 1968)

[25] H. Lefebvre,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I: Fondements d'une sociologie de la quotidienneté," trans J. Moore,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2, Verso: London, p.79, 2002. (originally published in 1962)

저 자 소 개

강 승 묵(Seung-Mook Kang)

정회원



- 1992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경영학사)
 - 2002년 8월 :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언론학석사)
 - 2008년 8월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영상매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 2014년 8월 ~ 2015년 8월 : 거버너스주립대학교(미국) 방문교수
- <관심분야> : 문화연구, 영상연구, 영화연구, 영상제작 및 비평